

지역 소식통

정읍시, 2025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복지 혜택 확대

정읍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지난 7월 25일에 결정된 바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 9913원이 2025년에는 609만 773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서 생계급여의 경우, 이번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최대 11만 7715원이 추가로 지급돼 195만 1287원이 증가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이던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제도도 선정기준에 활용된다. 시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청년 조기퇴직 방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청정지대)는 기업의 중간관리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교육과 신입직원 대상으로 '신입직원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청년의 1년 이내 조기퇴직(이직) 증가에 따라 임직 초기 적응 곤란으로 인한 '쉬었음' 전환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문화 교육과정은 △검사를 통해 알아보는 나의 일 유형 △유형별 MZ세대 파악하기 △이득보는 국민연금 교육 △챗GPT로 수월한 업무하기 △직장 내 괴롭힘 정의하기 △청년과 잘 소통하기 등으로 구성됐다.

신입직원 온보딩 과정은 △매일 잘 작성하는 법 △사회생활 커뮤니케이션 △챗GPT로 칼퇴하기 △노동법으로 권리 찾기 등이 운영된다.

/정읍=김대환기자

행정서비스 스마트화에 발맞춘다

고창군, 뿌리 고창인예우·효율성 극대화 조직개편 등 스마트 행복타운 속도

고창군이 행정서비스의 스마트화에 발맞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고 더 큰 도약 더 좋은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고창군은 70년 이상 고창에서 살고 있거나 3대 이상 거주하면서 고향 사랑을 실천해 온 '뿌리고창인'을 선정해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뿌리고창인 정책적 지원우대'는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이다. 특히 최근 귀농귀촌 등 외지 인구 유입과 맞물려 고창에서 나고 자란 군민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뿌리고창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해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및 탐사트운곡습지·선운산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종량제 봉투 지급, 문화의 전당 공연 관람료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으로 '책임행정 실현'에도 나선다.

지난 7월 민선8기 후반기 시작과 함께 이뤄진 고창군의 조직개편은 대한민국의 최고 유네스코가 인정된 세계의 보물 7가지 중 하나인 고창의 경정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관광산업과 '세계유산'로 명칭을 바꿔 세계유산을 보존·관리 활용하고,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또한 각종 전략사업 등으로 도시개발 업무가 급증하면서 기존 '건설도시'의 업무가 각각 '도시디자인'과 '건설'으로 분리됐다. 임시조직으로는 농촌활력사업에 김치산업육성 IT팀을 신설해 사시사철 김치원료 산업의 메카 도약을 목표로 김치원료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올 1월 시행된 전입축하금은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창군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축하금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현재 7월말 기준, 100여명이 신청·접수하여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8월중 지급 예정이다.

고창사랑기부제도 인기도 시행 첫해였던 2023년에는 많은 재외군민과 지역학교 동문 등 고창 관계인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모금액 6억 4000여만원을 달성했다. 올해도 고창군 고창사랑기부자에 기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 디지털타운조성 사업(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총사업비 11억1400만원)으로 라이브 방송스튜디오를 만들고,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16개소에 스마트 헬스케어 및 화상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CCTV에 지능형 선별관계 시스템을 도입해 효과적인 관계 기반을 마련했으며, AI 기반의 지능형 선별관계 시스템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상거래용 저울 내달 4일까지 정기검사

정읍시는 공정한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정기검사로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관수동 저울, 접시저울 및 판지저울, 전기식 저울이 대상이다.

단 2023~202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이나 판매용으로 보관 중인 저울, 체중계·가정용·교육용 저울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정해진 기일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저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가 진행된다.

지정기일 미수검자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고, 저울 소재 장소로 방문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대상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는 경우, 저울이 이동하면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일정비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검사는 구조불량과 오차여부를 중심으로 계량의 정확도를 점검, 합격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합격 시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 시 '불합격필증'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정 검사 및 장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게시란 또는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

냉방용품 보급·살수차 운영·폭염 취약계층 양산 배포 등 집중

부안군은 지난달 25일부터 발표 중인 폭염경보에 대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폭염은 평년보다 평균기온이 높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다른 해보다도 운영질환자 증가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은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거동불편자 등이 폭염에 피해를 입는 공간인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479곳에 선풍기 보급을 완료했다.

또 폭염 취약기간인 낮시간대 외출 시 운영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양산을 1000여개 제작해 폭염 취약계층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폭염특보 발표 시 운영 중인 도로 살수차를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1대를 추가로 배

치해 폭염 피해 집중기간(7월 25일~8월 10일)에 대응했으며 재난문자 발송과 마을 안내방송, 재해전광판 송출 등을 통한 군민 홍보, 재난도우미·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예방활동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대응 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청년친화 헌정대상 '소통대상' 쾌거

고창군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소통대상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친화 헌정대상은 청년들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를 시상하는 제도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며 올해로 7회를 맞았다.

헌정대상은 3개 분야(정책, 소통, 종합)로 나뉘어 청년 친화 지수를 기준으로 최고경영자·대학교수·청년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민선 8기 고창군은 청년이 행복하

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4개 분야(참여, 일자리, 주거, 복지) 69개 사업에 200여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 정착시켜나가고 있다.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핀셋 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지원사업(청년 교류활동, 취·창업 준비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등 동아리 운영을 위한 예산 200만 원 지원) △전북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근로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청년 함께 두배 적금(본인 납입금(1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 등이 시행 중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비서실 전 직원까지 재산등록 확대할 것"

고창군은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를 비서실 전 직원까지 확대하고 더 청렴한 고창군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 내역을 등록하고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개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에 주로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다.

이에 심덕섭 고창군수는 최근 공직자 청렴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비서실 전 직원까지 재산등록 의무를 지시했다.

최근 불거진 공직사회 관련 부패사건과 군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윤리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에

서 민원 최일선에서 일하는 정무·별정직 공무원 또한 청렴이 품에 배게 하겠다 의지로 풀이된다.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면 법에 의한 성실하고 정확한 재산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보유 재산의 누락 및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징계 의결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재산등록 의무는 직위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박미경 영화감독, 부안군 드림스타트 아동 응원상영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9일 박미경 영화감독이 부안군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한 응원상영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안군 드림스타트가 여름방학을 맞이한 아동들에게 영화관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 영화감독에게 단체관람을 문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뮤지컬 영화 'K스쿨'은 2022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4관왕(뮤지컬 작품상, 국제여성영화인상, 국제남우주연상, 관객상), 베스트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영화상을 수상하였다.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